

보도 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일시	2022. 10. 11.(화)
담당 부서	국정운영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책임자	외교정책팀장 박영철 (02-2100-2109)
		담당자	사무관 황상윤 (02-2100-2132)

## 한덕수 국무총리, 칠레 공식 방문(10.10(월)-12(수))

- △보리치 대통령 면담 △ECLAC 기조연설 △상원의장동포지상사 간담회 등 -  
-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IRA 대응 공급선 다변화 -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10(월)-12(수) 칠레를 공식방문하여 △「보리치」 대통령과의 면담 및 공식오찬, △상원의장 조찬 간담회,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특별세션 기조연설, △남극기지 (영상)통화, △동포·지상사 대표 간담회 등 일정을 가졌다.
- 한 총리는 10.11.(화) 「보리치」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 \* 칠레는 리튬, 구리 등 핵심광물 보유국이자, 중남미시장 교두보(우리나라의 최초 FTA 체결국, 태평양동맹 회원국 등)로, 2004년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및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양국 관계 비약적 발전
  -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통상·투자, △리튬 등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교통인프라, △방산, △남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보리치」 대통령은 한국과 칠레는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한-칠레 FTA 개선을 통한 교역 확대뿐 아니라 에너지·자원,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국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 특히, 한 총리는 보리치 대통령과 핵심광물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양국간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칠레는 주요 핵심 광물 부국 중 하나로, 특히 리튬 매장량은 세계 1위\*(’2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칠레의 리튬사업 진출을 추진해 왔으며,
    - \* 칠레 리튬 매장량 920만톤(전세계 42%, 세계 1위), 생산량 26천톤(세계 2위) (’21, USGS)
  - 미국과의 FTA 既체결국인 칠레와 핵심광물 협력 강화를 통해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광물이 특정 비율 이상(’23년 40% → ’27년 80%)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것일 것을 요구
      - 미국은 칠레를 포함해 호주, 캐나다 등 20개국과 FTA 발효 중
- 면담 이후, 한 총리와 「보리치」 대통령 임석 하에 △한국-칠레 민주적 대화 MOU, △지속가능한 광업 및 광물자원 밸류체인 협력 MOU\*, △농업 과학기술 연구협력 MOU를 체결했다.
  - \* 한국 기업의 투자 및 개발프로젝트 참여 지원, 광물탐사·재자원화 관련 공동 R&D, 인력·정보교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 추진 등
- 한 총리는 엘리살데 칠레 상원의장과 조찬 간담회(10.11.)를 갖고, 칠레 하원의 대북 결의안 채택 추진 등 우리 대북 정책 지지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칠레 의회 차원의 지지를 요청했다.
  - 엘리살데 상원의장은 칠레 하원뿐 아니라 상원에서도 북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겠다고 약속하며, 한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지지할 수 있도록 칠레 행정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했다.

□ 그리고, 한 총리는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특별세션 기조연설(10.11, 오후)을 통해 한국의 혁신 경험과 중남미가 지닌 잠재력을 결합하여 수소경제, 농업혁신, 디지털 혁신 등 분야에서 상호 신뢰에 기반한 미래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 또한, 이러한 한-중남미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상생의 플랫폼으로서 한국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남미 33개국들의 지지를 적극 요청했다.

\* ECLAC : 유엔 산하 5개 지역위원회 중 중남미·카리브를 대표하는 지역경제위원회로 46개 정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칠레 산티아고에 소재

□ 한편, 한 총리는 남극세종과학기지 안재우 월동연구대장과의 영상통화(10.11, 저녁)를 통해 남극세종과학기지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월동연구대원들의 남극 연구 활동을 격려했다.

\* 남극세종기지 : 1988.2월 준공, 남셰틀랜드군도 킹조지섬에 위치 / 남극 기후변화, 해양, 대기, 오존층, 고기후, 유용생물자원 등 연구 및 칠레·중국·아르헨티나 등 8개국 상주기지와의 연구결과 및 운영 협력 중

○ 월동연구대장은 세종과학기지가 특히 약 35년 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구온난화 등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를 관측 중이고, 관계기관들의 도움으로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 한 총리는 월동연구대장을 포함한 모든 월동연구대원들이 남극세종과학기지를 지금처럼 잘 운영하여, 우리나라 남극과학기지가 전 세계 남극 연구를 주도하는 전초 기지가 되기를 기원했다.

□ 그리고, 한 총리는 동포·지상사 대표 만찬간담회(10.11, 저녁)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동포들의 가교 역할을 당부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간담회에서는 한인회, 한글학교, 지상사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고, '서울의 거리'\* 조형물 제막식이 이뤄졌다.

\* 서울의 거리 : 50년간 칠레 동포사회의 숙원사업으로서, 한인 상가가 밀집해있는 산티아고(Santiago)시 레콜레타(Recoleta) 구 의회와 협조하여 일부 거리를 '서울의 거리' 로 지정

- 한 총리의 이번 방문은 7년만의 정상급 양자 방문으로, 금년 양국 수교 60주년과 양국 신정부 출범을 맞아 양국 관계 강화 차원에서 성사됐다.

-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양국 관계 격상과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한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교역·투자 증진, △공급망·경제안보, △재생에너지·기후변화, △인적교류 확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 증진 등을 위한 협력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참고 1)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특별세션 기조연설문

(참고 2) IRA 주요내용 및 칠레와의 광물자원 협력 의의

\*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

(UN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22. 10. 11. (화) 16:00]

호세 마누엘 살라사르 UN ECLAC 사무총장님,  
ECLAC 회원국 대표단 여러분,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최초로 ECLAC 특별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ECLAC 사무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한국과 중남미 15개국이  
수교를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과 중남미의 우정을 되새기며  
미래의 협력 비전을 제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한-중남미 60주년 회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먼저 대한민국의 시작, 발전과 도약의 과정에서  
중남미가 함께하였음을 기억합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에는  
중남미 군인 수 만 명이 참전하여  
머나먼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습니다.

콜롬비아처럼 공식 파병을 한 국가 외에  
멕시코, 수리남 등의 청년들이  
참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칠레, 아르헨티나 등 17개 국가들은  
물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냉전이 절정으로 향해가던 1962년,  
당시 중남미 20개국 가운데  
15개국이 한국과 수교한 것 역시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이후 중남미는  
한국의 UN 가입을 지지해 주었으며,

‘뜨리펠롤고 조약’<sup>1)</sup>의  
성공적인 비핵화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그리고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일관되게 성원해 주었습니다.

한국과 중남미는  
각자 여러 대내외적 도전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향해 전진하면서,  
경제협력도 돈독히 발전시켜왔습니다.

특히, 중남미는 한국 수출경제의  
첫 시작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첫 수입국은  
바로 1976년 에콰도르였으며,  
삼성전자 컬러 TV의 첫 수입국도  
1977년 파나마였습니다.

한국이 자동차, IT 분야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남미 국가와 국민들의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

1) 중남미카리브지역의 핵무기 확산 금지에 관한 조약으로 1968.4.22. 발효(인간 거주 지역  
에 ‘핵 없는 세계’를 만든 첫 번째 조약) / 2002년 쿠바의 가입 완료에 따라 현재 중남미  
33개국 모두 가입

그러나 20세기 말  
한국경제에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체제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질서를 배경으로  
경제체질과 대외신인도 개선을 위해  
극적인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보다 더 많은 개방과  
더 넓은 국제협력을 위한  
FTA의 추진이었습니다.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저는  
개방 없이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한국 최초의 FTA로서  
한-칠레 FTA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최근의 한-중미 FTA를 포함해  
17개 FTA를 추가로 체결하며  
FTA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과 중남미의 지난 60년은  
자유와 평화, 그리고 국제협력의 확대를 향한  
공동의 여정이었습니다.



## (한-중남미 미래 비전)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에서 목도하고 있듯이  
인류는 대전환의 시기에 돌입하였습니다.

기후위기와 팬데믹은 기존 협력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분야 등의 첨단기술 혁신은  
각국 산업체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격차의 심화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은  
새로운 경제안보 시대의  
최우선적 도전과제로서  
국제사회의 비상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한-중남미 미래비전으로  
'한국의 혁신 경험과 중남미가 지닌 잠재력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협력의 심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결합의 성공사례를 보았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다른 기업들은 포기했지만  
한국기업은 불굴의 끈기와 기술력으로  
지하 600m를 파 내려가  
1350만톤의 리튬을 발견해냈습니다.

칠레에서  
한국기업은 올해 초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완성하여  
20여만 칠레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적된 성공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과 중남미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파트너로서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소경제,  
농업혁신, 산림 보호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한국은  
중남미 국가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가치 있는 협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디지털·보건·그린 분야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중남미 지역의 포용적 개발과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ECLAC 협력기금 등  
ECLAC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한국의 Latin American Dream입니다.

## (2030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내외귀빈 여러분,

한국의 Latin American Dream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혁신 역량의 공유에 대한  
한국의 의지(commitment)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30년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시한입니다.

이러한 의미있는 해에 한국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sup>2)</sup>라는 테마로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2) “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

부산은  
전쟁과 빈곤을 벗어나 번영을 추구한  
한국의 위기극복과 도약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국 제2의 도시입니다.

그곳은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세계 2위의 환적항이기도 합니다.

2030 부산엑스포는  
한국과 중남미가  
성장과 도약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미래의 비전을 함께 구상하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한국 정부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노력을  
적극 지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맺음말)

내외 귀빈 여러분,

칠레 시인 가브리엘라 미스트랄<sup>3)</sup>의  
‘우정’에 대한 정의는  
한-중남미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오늘 이 자리에 매우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정이란  
“완전한 이해, 빠른 신뢰, 그리고 오랜 추억이다.  
즉, 신의(信義)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한-중남미 관계는  
지난 60년간 이해, 신뢰, 추억을 축적해왔습니다.

이제 그 우정과 신의를 바탕으로  
미래 60주년을 함께 합시다.

한국은 그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중남미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Vamos juntos hacia los próximos 60 años!<sup>4)</sup>  
(바모스 훈또스, 아시아 로스 뵤록씨모스 세센따 아뇨스!)  
Gracias!  
(그라시아스!) 끝.

3) 중남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1945년)로서 칠레의 외교관이자 시인(1889-1957)

4) 앞으로의 60년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 참고 2 IRA 주요내용 및 칠레와의 광물자원 협력 의의

### 1. IRA\*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22.8.16)

□ ①**북미 최종조립**(기본) + ②**광물요건** 충족시 3,750\$, ③**부품요건** 충족시 3,750\$ ⇒ 세 요건 모두 충족시 최대 7,500\$/대 지원

- ① (북미 최종조립 요건) 북미에서 전기차 최종 조립
- ② (광물 요건)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①**미국 또는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 또는 ②**북미에서 재활용**
  - \* ('23년) 40% → ('24년) 50% → ('25년) 60% → ('26년) 70% → ('27~'29년) 80%
- ③ (부품 요건) 배터리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에서 제조조립
  - \* ('23년) 50% → ('24~'25년) 60% → ('26년) 70% → ('27년) 80% → ('28년) 90% → ('29년) 100%

요 건			보조금 규모
① Final Assembly ※8.16 즉시 발효	+	② Critical Mineral Requirement	\$3,750
		③ Battery Component Requirement	\$3,750

### 2. 對칠레 협력강화 의의: IRA 광물요건 충족에 기여 가능

- 칠레는 **미국과 FTA 체결국**('04년 발효)으로 리튬 등 배터리 핵심광물 조달시 향후 IRA요건 충족에 기여 및 우리기업의 보조금 수령 가능성 증가
  - \* 칠레 리튬 매장량 920만톤(세계 1위), 생산량 26천톤(2위)('21, USGS)
  - \*\* **미국은 칠레를 포함해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20개국과 FTA 발효 중**
- 한국 기업들은 칠레 리튬 개발, 공급협력 등을 검토·추진 중
  - \* (LG엔솔) 칠레 SQM社와 '21~'29년간 탄산·수산화리튬 5만 5천톤(약 130만대분 추산) 공급 계약 체결('20.12월)
  - \*\* (수출입은행) 칠레 SQM社에 1억불 금융지원 약정체결('22.9월)
- 금번 순방 계기 (韓)광해광업공단 - (칠)광물공사(ENAMI) 간 「**광물자원 밸류체인 협력 MOU**」 체결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지원
- 칠레광물공사(ENAMI)는 칠레 신정부가 추진중인 리튬공기업 후보 기관으로 향후 한국기업과의 리튬 관련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할 전망
  - \* (주요내용) 핵심광물 투자정보 공유 및 협력기회 모색, 핵심광물 공동탐사·개발 프로젝트 발굴 및 잠재적 파트너 연계, 광물탐사·재자원화 등 관련 공동 R&D 등